

전문부사관의 자신감과 긍지 높인다

진안공고·남원제일고·한국치즈과학고, 군 특성화고 지정

전북지역 3개 특성화고등학교가 국방부지정 군(軍)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됐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안공업고등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국방부로부터 군 특성화고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진안공고는 정보통신 병과(해병), 남원제일고(해군)와 한국치즈과학고(해병)는 조리 병과로 지정됐다.

특히 진안공고의 경우 지난해 건설방비운동 병과에 이어 올해 정보통신 병과에 추가 지정되면서 전문기술부사관 양성소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군(軍) 특성화고등학교란 국방부가 지정한 전국 23개(2019년 현재) 특성화고교의 3학년 과정에서 군의 첨단 기술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해 전문병 18개월, 전문사 18개월 총 3년을 복무한 후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수기업 및 공기업에 취업하거나 전문기술부

사관으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제도이다.

3년간의 의무복무 중 학비를 지원 받으며, e-MU 대학에 진학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취득도 할 수 있게 하는 학생들은 고교과정에서 안정적인 취업에 병역 문제 해결과 더불어 대학진학까지 확실한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19학년도 제 1기 건설장비운용 군(軍)특성화반(25명)을 운영하고 있는 진안공고는 2020학년도 3학년 제 2기 건설장비운용 및 통신장비운용 군(軍)특성화반 운영을 위해 2019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장기 기술부사관의 진로희망을 가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진안공고로의 진로변경 전입학을 통해 보다 쉽게 직업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공고 송현진 군 특성화 부장교



진안공업고등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국방부로부터 군 특성화고로 지정받았다.

사는 "이번에 추가로 지정받은 군(軍) 특성화 통신장비운용 병과는 군(軍)의 첨단 통신장비를 운용하는 해병대의 전문기술부사관 양성과정"이라면서 "군의 정비운동 실무교육, 리더십교육, 군대예절, 체력단련 태권도 등 일반군

사교육, 각종 군 시설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특강 등 군 관련 맞춤형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전문기술병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고 전문부사관 후보로서의 자신감과 긍지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직업 체험의 날 운영... 전주지역 17개 고교 참여

"교육공무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도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전주지역 고등학생들이 전북교육청에서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가졌다.

18일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진행된 '2019 진로직업 체험의 날' 행사에는 전주지역 17개 고등학교에서 5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각 부서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멘토와의 대화, 1일 현장 업무 체험 등을 통해 부서별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행정기관의 다양한 실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과에서는 교육청과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등에 대해, 행정과에서는 학생 배치 계획 및 학급편제 방법 등을 안

내했다. 또 학교교육과에서는 대입진학지도지원실 운영과 진로교육 필요성, 교육혁신과에서는 혁신학교와 참학력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자치 및 학생인권교육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체험을 마친 뒤 체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와 진로직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해마다 '도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활동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업무를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윤리와 진로탐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0월에는 전주시의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워크숍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일 원의지빌 휴먼정읍홀에서 열리는 합동워크숍은 전북교육청과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역단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단, 기초권역단위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생태적 관점의 지역교육 문화를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가 각각의 역할을 찾아 마을교육생태계를 구축 활성화해 가고 싶은 학교·살고 싶은 마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환 교육감의 환영사에 이어 김희수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격려사, 양도길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 교장의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특강,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례 나눔, 지역별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나고 자란 곳이 마을인 만큼 가장 훌륭한 교실도 마을이다.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마을 전체가 학습공간이 되어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지난 17일 '한국-이스라엘 총장 국제포럼'에 참석해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하기 위해서는 협력시스템 구축해야"

김동원 총장, 국제포럼서 대학주도 산학협력 필요성 강조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지난 17일 '한국-이스라엘 총장 국제포럼'에 참석,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한국과 이스라엘 대학 간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포럼 토론자로 나서 대학주도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

업, 연구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캠퍼스 내의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하나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 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레우벤 리블린(Rao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스라엘 대학 총장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

신 주체로서 대학의 비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협의를 발표했다.

협약문에는 ▲창의적이고 융·복합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스타트업 및 창업육성·지원하는 산학협력 실현 ▲산업의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재생 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기업과 상호 연계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은성 기자

지역 발전은 인재 육성부터!

전주대 - LX 전북본부, 국토정보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00만원 상당 측량실습장비 기증·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규명)와 18일 대학본관에서 국토정보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호인 총장과 최규명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에 따라 ▲ 공간정보 및 지적발전을 위한 대학 인재 육성 ▲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공동 컨설팅 그룹 구성·운영 및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 학술 및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등을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LX 전북지역본부는 전주대 국토정보학 융합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15학점) 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 공간정보 등 국토정보 관련 실무 업무를 배우게 되며, 이수 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 시 가산점도 부여받게 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LX 전북지역본부는 전주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0만원 상당의 측량실습장비 4세트도 기증했다. 기증한 장비는 LX 공사에서도 현재 운용 중인 장비로, 실무현장과 학습공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최규명 본부장은 "국토정보와 지적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바람이 크다"며 "공사-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결국에는 LX 공사와 우리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지역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역 기관이 한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된 교육 기반을 통해서 그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전주대는 2016년부터 국토정보학 융합전공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전주대 국토정보학 융합전공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부동산학과와 법학과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전공으로 설치된 지 3년 만에 9명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합격자를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